

## 격 려 사

결실의 계절을 맞아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본보기로 자리잡은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른 신심, 자비로운 나눔, 함께하는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창립된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10월의 마지막 날에 ‘농촌사랑 나눔봉사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대법회와 영산재를 봉행함은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호국불교의 전통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호국의지를 심어주었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듯이 현시대에도 문화포교, 나눔의 실천 등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피는 역할에 힘써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사회와 국민들에게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종단은 수행 · 문화 · 생명 · 나눔 · 평화의 실천 덕목으로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108산사순례 기도회가 민족문화수호와 쇄신결사에 앞장서 동참함은 물론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해 전법행을 실천하는 것은 불교계에서도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지순례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농촌, 산촌, 어촌의 지역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고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현시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신행의 큰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묵 장학금 지급, 다문화가정 인연 맺기, 효행 장려와 군장병 격려 등, 108선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선묵혜자 스님의 원력과 회원들 한분 한분의 신심이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난 결과라 여겨집니다.

금강의 서원과 불퇴전의 용기로 정진하는 108산사순례기도 회원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불법홍포의 새장을 열며 자비로운 나눔을 통해 보

현행원을 실천하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되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는 일에 108산사순례 회원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사회는 불국정토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창립 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 법회가 원만히 회향되어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며 불보살님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